

HKJ 2015

발행처 : HKJ 한양대학교 예술학부
한국무용파트
편집인 : 박진영
편집부장 : 김재은 / 학생부장 : 공주희
주소 :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331호
전화 : 02-2220-1334
팩스 : 02-2297-7746
e-mail : kip1004@nate.com
인쇄소 : 한국문화인쇄

내일의 춤꾼 내일의 예술가가 있는 HKJ(Hanyang Korean dance Journal) 2015년 1월 27일 / 제14호 HKJ

마음속의 풀리지 않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 인내를 가지라.
문제 그 자체를 사랑하라.
지금 당장 해답을 얻으려 하지 말라.
그건 지금 당장 주어질 순 없으니까.

중요한건
모든 것을 살아보는 일이다.
지금 그 문제들을 살라.
그러면 언젠가 먼 미래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줄테니까.

젊은 시인에게 주는 충고-R.M 릴케



지 면
안 내

2 우리춤연구소 어제와 오늘

3 춤으로 여는 세상

4·5 한양&쿰 춤! 춤! 춤!

6 HKJ의 한울

7 냉정과 열정사이

8 HKJ 2014 종합

2014 우리춤연구소 국내학술심포지엄

“공연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2014년 11월 29일 한양대학교 퓨전테크센터(FTC)에서 우리춤연구소와 한국무용사학회 공동주최로 제8회 ‘공연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 대회는 테크놀로지와 융합된 공연예술 연구 및 작업에 참여한 전문가들을 초



청하여 과학과 예술의 융합에 대해 새롭게 성찰하고 연구, 발전시킬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마련하였다.

올해는 ‘공연 예술과 테크

나타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주제 하에 공연 예술과 테크놀로지, 학제간 융합 연구의 진화 과정과 패러다임을 논함으로써 시대적 흐름을 조망하고 창조적 협



업과 시너지 창출을 모색하는 시간이 가졌다.

이날 학술 심포지엄은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고, 총 다섯 가지 주제로 신상미, 권태수, 백두진, 오창근 교수와 이미희 우리춤연구회 회장이 발제를 하였고, 토론으로는 유미희, 조성호, 류응재, 박숙자 교수가 참여하였다.

박성은 기자



2005년 3월에 발족한 ‘우리춤연구소’는 우리춤의 발전을 위해 학제 간의 통합연구뿐만 아니라, 각종 세미나와 실기특강 활동까지 수행하는 한국 최초의 대학교 부설 우리 춤 연구기관이다. 2014년에도 ‘우리춤과 과학기술’이라는 제호에 걸맞게 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복합 연구에 집중한 논문들로 구성된 논문집들이 발간되었다. 우리춤연구소는 이와 같이 정기적인 논문집 발간을 유지하며 보다 더 폭넓은 연구와 질적 연구를 확대화하고자 한다. 김재은 기자

제7회 우리춤연구회 강습회 “진주교방굿거리춤”



우리춤연구회는 2008년을 시작으로 매년 강습회를 개최하고 있다.

예년과 같이 2014년 6월 28일 토요일, IT·BT관 한국무용홀에서 진행된 제7회 우리춤연구회 강습회가 성황리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강습회는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된 ‘진주 교방굿거리춤’으로, 이수자 박시종 선생님이 진행하였다.

진주 교방굿거리춤은 한국 춤의 네 가지 요소인 한·흥·멋·태를 고루 갖추어 보여주는 춤으로 차분하고 끈끈 하며, 섬세하고 애절한 춤이

다. 굿거리장단의 하나인 3분박으로 조금 빠른 자진 타령가락으로 시작하여 염불가락에서 타령가락보다 자진가락이 많이 들어가며 춤 동작이 복잡하고 즉흥적이다. 또한, 굿거리장단의 대표적인 악기는 장고 이지만 진주교방 굿거리 춤에서는 작은 소고와 큰 소고를 사용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정·중·동·등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매력을 갖춘 진주교방굿거리춤을 배우며 한국의 정서인 교방의 미를 되새길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다.

공주희 기자



작년에 이어 올해 7월, 우리춤연구소는 ‘찾아가는 특활교실’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지역의 초등학교에서 예술 활동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프로그램은 총 3회로, 2014년 7월 22일·대성초등학교, 9월 30일·청산초등학교, 10월 10일·고덕초등학교에서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수준별 학습이 진행되었다.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학생들이

찾아가는 특활교실

서로간의 협력을 통하여 협동심과 친밀감을 형성하고 다양한 신체 움직임으로 자신들의 꿈을 표현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수업은 오리엔테이션과 놀이형식



을 접하기 어려운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꿈을 향해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도 다양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학생들이 예술교육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은영 기자

춤으로 꿈꾸며 미래를 열어간다!

창작발표회

한양대 무용학과 학생들의 창작발표회가 2014년 5월 1일, 2일 이틀간 한양예술극장에서 개최되었다.

학생들은 그동안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실력에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움직임을 더하여 꿈과 노력의 결실을 맺으며, 자신만의 개성 있는 무대를 보여주었다.

이 공연을 통하여 학생들은 본인만의 색깔 있는 작품을 작업하면서 한 걸음 더 성장하였고 관객들은 학생들의 열정적인 모습에 뜨거운 박수를 보냈다.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정기공연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들의 정기공연이 무용학과 50주년을 맞이하여 2014년 11월 18일 강동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렸다.

이노연 선생님 안무의 2학년 학생들의 작품 '인간의 해후'로 무대의 막이 올랐고, 이영림 선생님 안무의 1학년 학생들의 작품 '부채 입춤', 마지막으로 이정윤 선생님 안무의 3학년 및 남학생들의 작품 '호노니Ⅲ'가 무대에 올랐다. 안무자 선생님과 춤연진이 함께 열정을 쏟아낸 공연이었고, 무용학과 50주년 정기공연이었기에 더 의미가 깊은 공연으로 기억될 것이다.

졸업발표회

2014년 12월 4일 목요일,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졸업발표회가 한양예술극장에서 개최되었다.

소중하고 잊을 수 없는 4년간의 대학생활을 끝으로 졸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다양한 소재와 안무로 작품을 구성하여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이 공연은 관객들의 박수와 환호 속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으며, 이번 졸업 발표회가 앞으로 사회에 나아가게 될 졸업생들에게 힘찬 발판이 되었기를 바란다.

최은영 기자



공과대학 19th Inter-University seminar 오프닝공연

2014년 8월 27~30일까지 4일에 걸쳐 HIT(한양과학기술원)에서 공과대학 도시공학과 19th Inter-University seminar on asian megacities를 개최하였다.

이 포럼은 도시계획과 메가시티(인구 1000만 이상의 도시)에 대한 포럼으로서 서울은 2014년 인구 999만명으로 25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내려갔지만 여전히 아시아에서 중요한 Megacity에 속한다고 한다.

행사에는 많은 아시아인들이 참여했



고,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재학생들이 8월 29일 축하공연으로 '부채입춤'과 '장고춤'

고춤'을 선보였다.

여백의 미와 여인의 멋스러운 자태를 표현하는 부채입춤으로 아시아인들의 눈을 사로잡았고, 흥겨운 장구가락에 맞춰 다양한 춤사위를 펼치는 장고춤으로 흥겨운 무대를 장식하였다.

이날 공연은 행사에 참여한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멋과 흥을 보여주었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 속에서 마무리되었다.

전미라 기자



2014 KUM Dance Company Performance



〈서연수 '참긴말 Ver.3'〉

〈2014 떠오르는 안무가전〉 정작-서연수 댄스컴퍼니 박시원 안무의 '사시(死詩) : MIJER : 모헤르〉 6월 21~22 죽음으로 가는 시간)-3days 일 M극장에서 서연수 댄스 은 4월 5일 M극장에서 공연 컴퍼니 MUJER: 모헤르의 1 되었다. 부: 참긴말 Ver.3, 2부: R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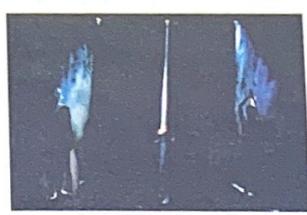
symphony가 공연되었다. 〈2014 베스트 레파토리 선 symphony가 공연되었다.

〈제 28회 현대춤 NGF〉 박시원 안무의 'Burn me out'은 9월 13일 서강대미리 풀에서 공연되었다.

〈2014 한국미래 춤협회 안무가전〉 박진영 안무의 '동상이몽-이중적고찰 II'는 10월 30일 성암아트홀에서 공연되었다.

〈Soul International Chorography Festival〉 서연수 안무의 'Red symphony'는 11월 28일 대학로 예술극장에서 공연되었다.

전미라, 전혜준 기자



〈박시원 'Burn me out'〉



〈박진영 '동상이몽-이중적고찰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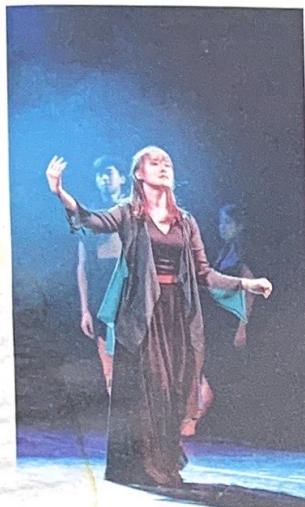
Congratulation



서연수

한국 춤평론가회
여지부문 "춤 연기상" 수상 - Red symphony

16th 북간 [For: Re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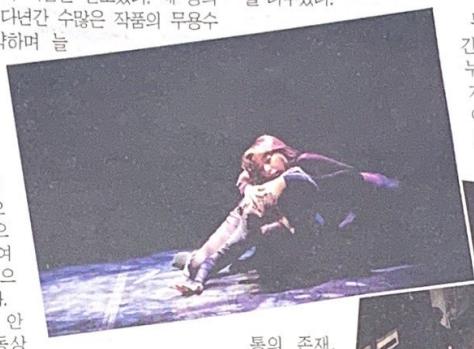
김운미춤무용단 소극장 기획공연 북간은 올해로 열여섯 번째를 맞이하였다.

이번 공연은 2014년 10월 18일 오후3시, 7시에 춤 전용 M극장에서 진행되었던다.

올해의 북간은 Forest=For: Rest 란 공동주제로 박진영, 조의연, 임해진 세 명의 안무가가 작품을 선보였다. 세 명의 안무가는 다년간 수많은 작품의 무용수로서 활약하며 늘

새로운
모색을
꿈꾸는
젊은 춤
꾼들이다.
올해
도 멋으
로, 흥으
로, 그 여
백을 춤으
로 채웠다.
박진영 안
무의 '동상
이몽(同床異夢)-이중적 고찰'

은 라이브
연주와 탐댄스 소리로 공연의 막을 화려
하게 열었다. 안무자는 인간의 이중적인
심리와 그에 따른 비논리적 모순이 반복
되는 현상을 춤으로 풀어내고자 하였다.
다양한 앙기 연주로 신나는 음악과 움직
임이 큰 춤이 역동성 있게 펼쳐지는데,
이는 작품의 몰입과 동시에 시너지 효과
를 배가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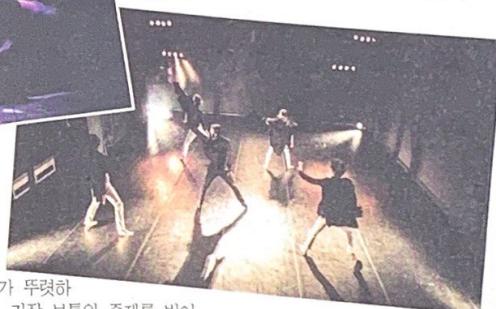


두 번째 작품 조의연 안무의 '가장 보통의 존재'는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소재를 다룬었다.

투명인
간처럼 그
누구의
기억 속
에도 남
지 않는
가장 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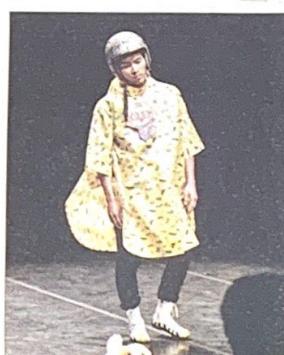
순간(別☆순간)'은 무용수 각 개인의 특
성이 진하게 담긴 작품으로, 인간의 춤
과 어두운 삶 속에서 흐릿해진 존재를
표현하고자 하였다. 찰나의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하게 빛나는 순간으
로 기억되길 바라는 안무자의 바람이 담
긴 작품이었다. 작품은 세상 속에서 나
란 존재가 얼마나 윤전한 존재인지 궁금
증을 자아내게 한다.

공주희 기자



통의 존재.
주제가 그
대로 녹아
든 작품은
안무자의
개성과 재치가 뚜렷하
게 드러났다. 가장 보통의 존재를 받아
적으로 회화화 시켜 유쾌하게 그려내어
다.

마지막 작품인 임해진 안무의 '별별'



2014 Korean Cultural Festival to Celebrate the G20 Summit

2014년 더운 여름이 선선한 가을로
바뀌는 10월, 해외공연이 시작되었다.

공연은 호주한인협회에서 주최하는
한인공연축제로서 2014 Korean Cultural
Festival to Celebrate the G20 Summit 이
리는 주제로 10월 4~5일에 진행되었
다.

2011년 이태리 공연 이후로 처음 접
하는 해외공연이었다. 안지형, 김민조,
박시원, 박진영, 안선영, 김찬미, 신나
래, 김재은, 이렇게 여덟 명의 단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해외공연 준비를 시작
하였다.

2014년 10월 1일 인천공항에서 출발
하여 긴 비행시간을 거쳐 호주 브리즈
번에 도착했다.

공항 도착 후, 축제장소로 향하는 차
량에 탑승하여 30분간 이동하여 숙소에
도착했다. 브리즈번에서의 첫 식사를
마치고, 시내가 한눈에 보이는 전망대
에서 브리즈번의 전경을 눈에 담고 다
음날 일정을 준비하였다.

첫 공연이 있던 4일 오전, 뜨거운 태
양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관객들의 호응과 함께 무사히
공연을 마쳤다. 첫 공연 후 브리즈번
시내에서 개인시간을 보내고, 다음 날
의 투움바 공연을 위해 숙소로 돌아가
악기정비와 의상준비를 하였다.

5일 오전부터 브리즈번 숙소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투움바 공연장을 가
기 위해 일찍 채비를 마쳤다. 전날 브리
즈번 공연장보다 작은 소극장 무대인 만

큼 관객들과 같이 호흡하고 교감할 수
있었다. 호주에 거주하여 한국문화를
접할 기회가 없었던 한인어린이들도 처
음 보는 한국무용과 민속놀이를 관람하
고 좋아하며 따라 하기도 했다. 공연이
끝나고 관객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무용단 단체촬영을 하며 성황리에 모든
공연을 마쳤다.

이를 동안의 공연일정을 마치고, 남은
하루 동안 사파리구경도 하고, 파도 타
는 서퍼들의 천국이라 불리는 '서퍼스
파라다이스'가 있는 골드코스트 해변을
뛰놀기도 하며 자유 시간을 가졌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아침, 단원들의 아
쉬움을 아는지 날씨도 쌀쌀하였다. 모두
호주에서의 강렬한 추억을 가슴에
새기며 공항으로 향했다.

더운 날씨 속에서 공연준비를 하며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지만, 막상 한국
에 돌아오니 그 곳에서의 추억들이 새
록새록 떠올랐고, 그 곳 사람들 또한
그리웠다.

기회가 된다면 다시 축제에 참가하고
싶고, 끝으로 좋은 기회를 제공해준 교
수님과 행사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마음
을 표한다.

김재은 기자



예술·체육대학 학장 취임 인터뷰

스스로 알아서 행하자



Q. 예술체육대학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 1963년 체육대학이 설립된 이후 1964년에 무용, 체육, 경기지도학과가 개설되었고, 1969년에 무용학과 체육학 두 전공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작년 2014년에 무용학과 동문들이 모여 무용학과 개설 50주년 기념공연을 열어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2007년에는 스포츠산업학과가 생성되었고, 2013년에 현사회의 흐름에 적응하여 글로벌 인재를 기르고자 무용학과, 연극영화학과, 체육학과, 스포츠산업학과 모여 예술체육대학으로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약 760명의 학생들과 105명의 석·박사생들이 예체능 대학교의 날개 아래서 각자의 꿈을 추구해나가고 있습니다.

Q. 각 학과의 인재상은 어떻게 됩니까?

- 체육학과는 건강, 운동, 스포츠 및

과학에 대한 전인적 지식을 가진 연구자, 교육자, 트레이너 그리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것이고, 스포츠산업학과는 IT, 관광, 미디어 등 타 분야와의 융합 트렌드가 급성장하고 있는 스포츠 산업 분야의 유능한 인재들을 배출해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연극영화학과는 인류에 관련한 다양한 주제를 탐구하고 그것을 퍼포먼스와 융합하는 작업을 통해 미래 지향적인 예술가를 육성하는 것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무용학과는 학생들의 창의력 개발 및 공연을 펼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하여 전문 무용가로서 활약할 수 있도록 기초를 배양하고 더불어 무용교수자 배출을 위한 무용교사를 양성하는 것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학생들을 위한 창작 발표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행사는 2, 3학년 학생들을 위한 것이에요. 무용학과에서의 첫 1학년 생활은 학생들로 하여금 대학 입학 전 자신들이 배워 온 춤 스타일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만의 춤 색깔을 찾아가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지요. 그 후 2학년과 3학년이 되면 학생들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움직임을 만들고 전체 학교 구성원들 앞에서 그것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몇몇 학생들은 팀을 구성하여 매우 다른 스타일의 춤을 소화해 내기도 하고 자신들만의 독창적인 움직임을 만들어 내는데, 그런 점에서 이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생들에게는 서로에게 배우고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해나가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4학년 학생들을

위한 졸업 작품 발표회가 열리기도 합니다.

Q. 예술체육대학의 각 분야의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연구기관이 있습니까?

- 예술체육대학은 이론과 실기에 능한 인재를 육성하여 그들이 그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게끔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노력으로 우리춤연구소, 체육과학·스포츠산업연구소, 현대영화연구소, 공연예술연구소와 같은 학교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춤연구소는 2005년 3월에 발족하여, 우리춤의 발전을 위해 학제 간의 통합 연구하는 한국 최초의 대학 부설 우리춤 연구기관입니다. 우리춤은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발전시켜 한 국인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이를 국제적 문화교류를 통해 세계만방에 널리 전파하자는 취지로 설립되었습니다.

체육과학·스포츠산업연구소는 1971년에 발족하여, 학제간의 연계(의학, 공학, 생물학, 등과의 연계)를 통하여 체육학의 전문화를 도모하며 국민건강의 증진을 위한 연구 및 활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대영화연구소는 2005년에 발족하여 국내외 현대영화의 이론, 역사, 비평,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하는 전문적인 영화연구소입니다.

공연예술연구소는 2009년 10월에 발족하여 한양대학교 연극학과와 무용학과가 지난 우수한 인적 인프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을 만들고자합니다.

Q. 예술체육대학 진학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과 재학생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예술체육대학은 실기와 이론을 모두 겸비해야하는 전인적인 융합이 기본이 되는 학과이기 때문에 학생들은 본인이 만족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노력과 동기부여의 요소를 스스로 갖추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예술체육대학에서 본인의 꿈을 현실로 펼칠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학생들로 거듭나기를 바라고, 적극적인 지원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예술체육대학 전 학과가 올해부터 OCW 동영상 촬영을 통해 양질의 교육 자료를 웹상에 무료로 공개하는 강좌를 개설하여 누구나 강의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대학의 질 높은 교육자원을 국내외의 환경에 있는 학습자 모두에게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이죠. 현재, 그에 따른 수업환경을 갖추기 위해 첨단강의실 준비과정에 있습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임하여 어떤 난관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개척하여 본인의 꿈을 여기서 신명나게 이루어 보라는 조언을 하고 싶습니다. '스스로 알아서 행하자'는 말은 본인 스스로 능동적인 자세로 시의적절하게 행한다는 것이고, 성실함은 사람을 평가할 적에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는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한 것을 바탕으로 2015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모든 일을 창발적으로 신나게 행할 수 있는 예술·체육대학이 되길 바랍니다.

박진영 기자

자유칼럼

내가 사는 도시의 사람들

4학년, 졸업할 학년이 되어 나를 되돌아보니 4년간 틈에 박힌 채 그저 안주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내게는 좀 더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기 위해서 온 런던, 이곳에 산지 어느덧 1년이 되었다. 처음에 이곳을 빨간색 2층 버스, 아름다운 건물들과 텁스강의 풍경. 그리고 자유롭고 여유로운 사람들의 모습으로 가득 채운 채 왔지만, 그 로망은 잠시였고 나는 지난 1년간 몇 번의 슬립프와 변화를 겪어야 했다. 지금도 그런 과정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것을 배워나가고 있다. 이곳에서의 생활과 사람들을 통해 우리나라와 다른 문화, 생각들을 보고 느끼면서 말이다.

우선 이곳의 사람들은 건강과 체력 관리를 굉장히 우선시 한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일과 업무를 더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건강은 뒷전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곳은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또한 자신들의 여가생활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하는데, 가끔은 여가생활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닌가 싶은 정도로 그에 대한 투자가 상당했다. 내가 느끼기에는 '돈'이라는 것을 보는 자체의 관점이 우리나라와 조금은 다른 듯 했다. 아끼고 모아서 부자가 되고 잘 살기 위함 보다는 자신이 지금 현재 즐겁게 살고 현재의 자신에게 투자하기 위함이었고, 그런 모습이 자신의 삶을 굉장히 즐겁게 살아가는 것으로 보였다.

또 하나! 이 도시의 사람들은 관심 영역이 굉장히 넓고 어린아이들처럼 호기심이 넘쳐났다. 자신의 전공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배우려는 태도를 취했는데, 실제로 역사, 음악, 건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많은 지식들로 나를 깜짝 놀라게 하고 있다. 예를 들면, 지난해 내가 무용을 배우기 위해 런던의 한 학교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가장 높은 레벨은 전공자들이 받는 수준의 어려운 수업이었다. 그러나 그중의 반 이상이 비전공자들이었고, 꾸준히 몇 년을 해오던 사람들도 꽤 있었다. 물론 아니라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 관심갖고 배우려고 했다. 우리나라의 전통 의상과 문화, 전통 습관 등 자신들과는 다른 문화에 굉장한 관심을 보였다.

내가 이곳에서 가장 멋지다고 느낀 것은 자국의 문화를 바라보는 마음가짐이다. 영국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항상 느꼈던 것은 자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그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다

는 것이다. 각자의 문화를 존중하고 공유하고 싶어 했으며, 이런 점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 도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삶을 즐기는 방법을 알고 있으며, 자국의 문화를 사랑하는 멋진 사람들이이다. 영국에서의 1년은 내겐 정말 중요하고 값진 시간이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경험하니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은 곳이고, 내가 경험해야 할 가치들이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을 몸소 체험하고 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진 나의 시간을 경험하고 배워가며 나라는 사람을 채우고자 한다!

10학번 함예온 졸업생



Talk! Talk! Talk!

‘융합’의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대통령의 새해인사, 뉴스, 논문 등에서 심심치 않게 ‘융합’이란 단어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대학에까지 전해져, ‘융합’과 관련된 강의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자신의 주전공과 다른 전공인 복수전공을 반의무적으로 이수하며, 오늘날 시대가 원하는 융합형 인재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융합이란, 두 가지 이상의 학문에서 각각의 특성을 합쳐 시너지효과를 유도하며, 더 가치 있고 새로운 무언가를 창출하는 것이다.

무용 또한 이 같은 흐름에 맞추어 타 장르의 다양한 융합을 시도하고 있다. 무용경연, 무용공학, 무용의학과 같은 무용과 타 학문간의 이론적 융합은 이미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왔고, 무대 위에서 음악, 설치미술, 과학과 인문학을 융합한 이른바 ‘융합공연’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진화론의 아버지 찰스다윈이 “생태계에서 결국 살아남는 자는 강한 자가 아닌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자이다.”

라고 했듯, 융합에 따른 무용계의 움직임은 이전보다 더 광범위한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급변하는 세상을 깨뚫어볼 수 있는 힘은 ‘융합’에서 나온다. 한양대학교 부설연구소인 우리춤연구소는 현시대의 키워드인 ‘융합’을 시대에 앞서 캐치하여 논문집뿐 아니라 다양한 연구에 적용했으며, 김운미춤무용단은 ‘2013 신화상생 神話相生’을 통해 ‘과학기술과의 융합’을 토대로 한국적 소재와 영상테크놀로지의 융합댄스 퍼포먼스를 성황리에 마쳤다.

융합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기술적 요소가 되면서, 예술분야에 있어 전 세계 학교 커리큘럼 또한 예술융합교육으로 바뀌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로도 융합적 사고력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정책이 2011년도부터 본격 추진되어 융합교과서 제작 및 융합교과교사 양성, 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 융합학과 신설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무용융합교육도 새로운 교육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다.

오로지 실기위주교육에서 벗어나 무용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와의 융합교육이 이루어지고, 또한 다른 학문들과의 상호적 소통을 통한 교육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정규 무용 수업이 있는 서울시 내의 일부 학교에서는 창의력 개발법, 사회적 이슈, 영화나 책 등을 무용 수업에 접목시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을 창조해 내기도 하였다. 이처럼 무용융합 교육은 점차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융합’은 사회가 더욱 발전함에 따라 교육뿐만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있어 그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맞춰 융합적인 사고와 태도를 지녀야 한다. 일방적인 주입식 관념에 물들지 않아야 하며, 다양한 방면으로 사고하는 연습을 하고 도전하여 융합형 인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김지호, 정혜운 기자



2014년 12월 23일, 작년 첫 기부금 전달식에 이어 성동구 하왕십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보육원인 이든 아이빌에서 김운미 무용단의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되었다.

올해 개원 65주년을 맞은 이든아이빌은 1950년 전쟁으로 고아가 된 아이들을 수용하여 보호하는 것을 시작으로, 소외된 아이들을 보호하고 육성하는 보육 사업을 통하여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이 날 김운미 교수님은 기부금을 전달하며 향후 지속적인 후원과 함께 재능기부 등을 통해 보육 사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학생들에게 예술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매년 열리는 개원기념행사 공연 장소를 함께 대관하는 등 올해와 같이 지속적인 후원을 기약하며 기부금 전달식을 마무리 되었다.

박진영기자



영화리뷰

인터스텔라(Interstellar)

‘올해 4번째 1000만 돌파 영화’, ‘국내 개봉 외화 중 세 번째 1000만 영화’, ‘역대 외화 3위’

이 경이로운 타이틀의 주인공은 바로 2014년 11월 6일에 개봉한 영화 ‘인터스텔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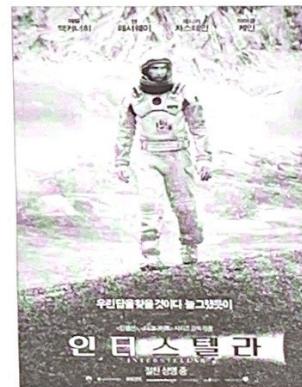
‘다크나이트’ 시리즈와 ‘인셉션’ 등의 작품을 통해 형성된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에 대한 신뢰도로 개봉 전부터 SNS상에서 돌풍을 일으켰다. 여기에 ‘인터스텔라’는 아이맥스로 봐야 한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개봉 수주 전부터 아이맥스 명당자리의 표가 매진되기도 했다.

인터스텔라는 가까운 미래, 전 지구적 규모의 식량난과 환경 변화에 의해서 인류의 멸망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인류 멸망으로부터의 구원을 위해 전인 미답의 새로운 행성을 목표로 우주선으로 탑승하고, 그로 인해 우주에서 발생되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이 영화는 광활한 우주를 가능한 한 현실적으로 보여줄뿐써 관객들의 눈을 만족시켜준다. 169분이라는 긴 상영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루함을 느낄 새도 없이 우주세계에 빠져들게 만든다. 우주와 차원에 관한 여러 용어와 이론들은 다소 완벽하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

분이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머지않아 미주하게 될 지구의 상황, 그리고 우주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러한 점들은 우리에게 새로운 충격과 놀라운 상상력을 안겨주고 있다. 관객들은 영화를 보는 내내 거대한 우주에 빠져들었고, 영화의 막이 내리고 나서 도 한참을 그 여운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한마디로 좌중을 압도하는 영화이다.

배우들의 뛰어난 열연, 그리고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놀라운 상상력과 열정, 노력으로 SF영화의 한 획을 긋는 대단한 작품이 탄생하게 되었다.



손수연 기자

시연회

2014년 12월 23일,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학생들의 시연회가 진행되었다. 매주 이런 아침부터 열심히 연습한 작품들을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선보이는 뜻 깊은 자리였다. 오후 1시부터 진행된 시연회에는 학생들의 그간 열정과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특히 이번 시연회에는 일 년 동안 깊은 가르침을 주신 교수님과 선생님들께 보답하고자 학생들이 직접 장기자랑을 준비하여 웃음과 기쁨을 함께 선사하였다. 다가오는 2015년에도 한양대학교 학생들의 멋진 활약을 기대해본다.



Diary of hope

한걸음, 두걸음 더욱 기대되는 성장

하루가 힘들고 고된 입시를 치르고 저에겐 정말로 감사한 한양대학교 입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하니 입시무용에서 벗어나 더욱 다양한 춤들을 접할 수 있고 전과는 확실히 다른 생소한 움직임들을 배워나가며 흥미를 느꼈습니다.

다양한 멘토 선생님들의 조언을 들으며 내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한 번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나만의 개성적인 무용 가치관을 형성해 가는데 동기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의 다양한 사람

들과 소통을 하며 시야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처음엔 생소하였지만 시간이 지나니 한양대학교에서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좋은 인연을 맺어갈 수 있음을 감사하다고 느꼈습니다.

저에게 남은 앞으로의 3년의 시간은 저를 위해 투자하고 진로고민도 해나가며 후회 없는 학교생활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훗날 한양대학교를 되돌아보며 자랑스러워할 수 있고 부끄럽지 않은 한양인이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14학번 정주희-

지난 4년을 돌아보며...

간절히 바라던 한양대학교에 입학하여 무용학과 11학번이리는 타이틀을 갖게 되었습니다. 대학캠퍼스에 대한 꿈을 품고 입학하여, 너무 좋은 동기와 선배들을 얻었습니다.

입학 후 꼭 해보고 싶었던 MT 가기, 동아리활동, 도서관에서의 공부, 인기강좌 수강, 노천극장에서 자장면 먹기, 무용실에서의 밤샘 연습 등...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서 행복했고, 학교생활 하루하루가 제게 너무 소중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역에서 올림픽체육관까지

걸어가는 동안 제가 한양대 학생이란 사실이 제 스스로 자랑스러웠습니다.

좋은 추억만 남았던 4년의 학교생활은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다양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운미 교수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졸업생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성실히 초심을 잊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한양대 무용학과 파이팅!

- 11학번 이지은 -

더 눈부실 나의 마지막 20대를 다짐하며

2015년이 시작되었고 어느덧 나의 20대의 마지막 한해를 맞이하였다. 이번 겨울은 나에게는 하나의 중요한 일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길을 고민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한해를 계획하고 특별하게 보낼 수 있는 다짐을 하고 있다.

그 다짐들 중 지금 실천하고 있는 한 가지는 무용학과 조교로서 미무리를 잘하는 것이다. 내성적이고 낯가림이 심한 성격 탓에 무용을 통한 작업이나 생활 외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내게 조교자리란

거대한 산과 같았다. 내가 사랑하는 학교에서도 도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이것이 앞으로 내가 다른 무엇을 시작할 때의 전진할 수 있는 힘이 되리라 믿는다.

마지막으로 나의 시작이자 끝을 함께 하고픈 한양대학교와 많은 기회와 배움을 주시는 교수님, 친언니와 같이 함께 해주는 무용단 선배님들과 활기찬 후배들이 있어서 2014년 든든하게 울 수 있다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김운미 품 무용단 정단원 임혜진 -

무용학과 동문 김수기가 운영하는 '샤브쌈주머니'



은 CEO 김수기는 사업수익의 일부를 학교 발전기금으로 무용학과에 기부하였으며, 외식사업과 동시에 무용활동을 병행하고자 하는 포부를 밝혔다.

2014 김운미 교수님 동정

한양대학교 무용학과 김운미 교수는 올해 8월 예술·체육대학 학장 취임과 더불어 여러 경사를 맞으며 다양한 성과를 거두었다. 2014년 3월 무용사학회와 한국무용기록학회가 '무용역사기록학회'로 통합되어 한양대 김운미 교수와 이화여대 조기숙 교수가 공동회장으로 위촉되었다.

11월 8일에는 이화여대 국제교류

관에서 무용역사기록학회 주최인 제16회 '공동체의 춤'에서 생태예술의 춤으로 : 한국 커뮤니티 댄스의 역사와 전망' 학술심포지엄을, 같은 달 29일에는 한양대학교 FTC에서 우리춤연구소 주최인 제8회 '공연예술과 테크놀로지의 융합 콘텐츠에서 나타나는 상호 커뮤니케이션'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학술활동과 더불어 우리춤과 과학기술 2월 발간에 '경기도 도당굿 쌍웅굿춤의構造의 意味·시간성과 공간성을 중심으로-' 한류 콘텐츠로서의 한국 전통춤 활용에 관한 담론과 5월에 '한국춤의 오브제 활용 연구-' '동해안 벌신굿'과 'Soul. 해바라기'를 중심으로-, '프로젝션 맵핑'을



HKJ 만든 사람들 ♥



HKJ (Hanyang Korean dance Journal)

발전기금 기부자 명단

윤성주, 이노연, 강은구, 지제욱, 이종숙, 장윤기, 이정운
고석용, 이현주, 박혜준, 이미희, 인지형, 이영림, 서연수

-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

HKJ는 더 의미 있는 내용으로 무용계의 우체통이 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후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후원금계좌번호안내>

국민은행 : 박진영(HKJ신문)

280601-04-164329

E-MAIL : kip1004@nate.com / andydwdoms@naver.com

QR코드 만나는 HKJ와 KUM dance company



HKJ QR 코드



KUM QR 코드